“기득권 모두 내려놓겠다” … 민주당 ‘혁신’ 내세워 安風 견제

김한길 대표 등 당 지도부 광주·전주 잇따라 방문
양동시장서 최고위원회의·문화전당 공사현장 찾아
“호남은 외할머니네 툇마루 같은 곳… 외면 않겠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0일 광주와 전북 전주 등을 잇따라 방문,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며 ‘호남 구애’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지난 60년간 야당의 정통성을 이어온 ‘적자’라는 점과 민주당과 호남지역민의 관계를 ‘조강지처(糟糠之妻)’에 빗대며 ‘텃밭 사수’와 ‘안풍’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광주 방문은 지난 2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광주를 찾은 데 이어 18일 만이며, 새해 첫 최고위원회 장소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열린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김 대표는 서정주 시인의 ‘외할머니의 뒤안 툇마루’라는 시 구절을 인용해 “우리 민주당에 있어 호남은 어머니에게 꾸지람 듣고 갈 곳 없는 아이가 찾아가는 외할머니네 툇마루와 같은 곳”이라며 호남과의 친근감을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호남의 툇마루를 민주당에 허락해 준다면, 오디 열매를 먹고 약으로 삼아 민주당이 다시 기운을 내 (지방선거를)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당의 키워드로 ‘혁신’을 내세웠다.

김 대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호남의 뜻을 외면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호남이 자랑스러워하는 민주당으로 바로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계파주의가 공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투명한 공천 실천과 필요하다면 과감한 개혁공천으로 당내 외 최적·최강의 후보를 찾아 내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광주는 민주당의 모태이고, 발원지”라며 “신익희·조병옥·장면·김대중으로 시작된 민주당은 만고풍상을 함께하면서 호남지역민들과 조강지처적 관계를 가져오고 있다”고 민주당과 호남의 관계를 설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분열은 새정치가 될 수 없다”며 “분열의 정치는 (정부·여당의) 독선과 독주를 방조하고 민주주의·민생을 패배로 내모는 낡은 정치이고 패배의 선택”이라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를 ‘분열의 정치’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 시민정신이 야권 분열을 막고, 60년 민주당을 더욱 정통 민주당답게 진화 발전시켜내는 통합의 새정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야권의 개혁은 광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야권의 분열을 막는 것이 큰 숙제”라며 ‘안풍’을 견제했다.

반면, 조경태 최고위원은 호남에서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에 고전하고 있는 데 대해 “선거 패배에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자기 반성을 철저히 하고, 과거를 답습하는 연대나 연합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지난 60년간 호남의 명령에 충실했다. 호남의 적자이자 맏이인 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지도부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공사현장을 찾은 뒤 전주로 이동, 지역 언론과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 민심을 공략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지도부의 광주방문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항상 호남을 찾아 ‘미워도 다시 한번’식의 공허한 외침에 그칠 뿐 지역민과 소통 부재 등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양동시장 찾은 김한길 대표 20일 광주를 방문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당 지도부가 서구 양동시장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0일 전남도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6월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낙연 전남지사 출마 선언 “혁신 도지사 되겠다”

10대 정책비전 제시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20일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출마 선언을 한 뒤 “‘부드러운 혁신, 즐거운 변화’를 이룰 ‘행동하는 혁신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년 전부터 도지사 출마를 생각하면서 전남을 구석구석 누볐고, 뿌리깊은 전남의 낙후를 깨려면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식량산업과 해양산업 육성, 문화와 관광 융성 등 10대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중부권에 생물의약 산업기지를 조성하고 줄기세포 치료센터 유치, 신재생 에너지 산업 견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산업, 식량산업, 실버산업 등의 육성과 공공의료·생활복지 내실화 등을 10대 정책으로 내걸었다.

또 새로운 전남도청을 만들기 위해 도민과의 소통, 동부권에 제2청사 건립, 인사 공정 등의 5대 도정혁신안도 발표했다.

그는 “새로운 전남을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출마에 따른 국회의원직 사퇴는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지원 의원에 대한 중진 차출론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당을 걱정하는 충정으로 믿고 있다. 기존 후보가 승산이 없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기존 후보도 누구와 경쟁해도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반성할 점은 국민이 체감할만한 변화와 내부쇄신을 못하고 있고, 노선과 태도에서 충분한 믿음을 주지 못한 점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출마선언에는 민주당 손학규·정대철 상임고문, 양승조 최고위원, 김동철 의원 등 국회의원, 지역구 군수와 지방의원, 종교계 관계자,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영록 의원 ‘약무호남 희망 민생탐방’

“2월초 전남지사 출마선언…끝까지 완주”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김영록 의원(사진)이 오는 22일부터 민생탐방에 나선다.

김 의원은 20일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22일 목포 자유시장 방문과 ‘전남 조선해양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하고 민생탐방 일정을 시작한다.

‘약무호남 희망 민생탐방’이란 제목의 탐방에서 김 의원은 위기의 민주당과 전남지역 상황을 직접 느껴보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민심의 현장에서 찾는다는 각오다. 또 2월에는 임시국회가 있는 만큼 국회 일정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민생탐방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일각의 ‘중도 포기설’ 제기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출마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달 5일 출판기념회를 전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할 분“이라며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전남지사 선거구도가 정치게임 양상으로 전개돼 안타깝다”며 “전남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또 누가 발전시킬 수 있을지 등 정책대결이 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